

2019년 7월 18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구제역방역과 과장 김대균(044-201-2531), 서기관 장순석(2537)/ 제공일: 7월 18일(총 2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돼지열병(CSF)은 지속적인 방역관리중(17년 이후 사육돼지에서 비발생),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예방을 위한 멧돼지 차단 등 방역관리 지속 추진 [세계일보 7. 18일자 온라인 기사에 대한 설명]

- 돼지열병(CSF)은 '03년부터 국내 사육돼지에 일제 백신접종을 하고 있으며, '17년 이후 사육돼지에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.
 - ※ 돼지열병(CSF, 과거 명칭: 돼지콜레라)은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과는 전혀 다른 바이러스성 질병임(CSF: Pestivirus(RNA바이러스) / ASF: Asfarvirus(DNA바이러스))
 - 최근 경기북부, 강원지역 야생멧돼지로부터 검출된 바이러스는 유전자 분석결과* 해당지역 멧돼지 간 순환 감염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, 북한에서 넘어온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.
 - ※ 최근 검출된 바이러스는 '11년 경기북부지역 멧돼지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와 상동성이 높음
- 아울러,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예방을 위해 멧돼지 침입차단 시설 지원 등 방역관리를 추진 중이며, 앞으로 환경부와 함께 야생 멧돼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
- 7월18일자 세계일보<"휴전선 멧돼지 돼지열병 검출 두배 증가... 정부, 방역 비상"> 온라인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



언론 보도내용

- ☐ 올해 들어 휴전선 접경지역의 야생멧돼지를 중심으로 돼지열병(CSF) 바이러스 검출빈도가 2배 넘게 급증하였으며, 일부 돼지열병(CSF) 바이러스는 북한에서 건너온 것으로 확인됨

- 돼지열병(CSF)은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과 전파 양상이 유사해 ASF 전파에 대비한 방역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이므로, 북한으로부터 ASF 남하를 방지하기 위해 멧돼지 개체수 조절 필요성이 제기됨



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

- 농림축산식품부(이하, 농식품부)는 국내 돼지열병(CSF) 발생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관리를 지속 추진 중이며, '17년 이후 사육돼지에 발생하고 있지 않음

※ 돼지열병(CSF, 과거 명칭: 돼지콜레라)은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과는 전혀 다른 바이러스성 질병임 CSF: Pestivirus(RNA바이러스) / ASF: Asfarvirus(DNA바이러스)

* 국내 발생(CSF) : ('07) 5건 → ('08) 7 → ('09) 2 → ('13) 1 → ('16) 2 → ('17~) 0

- CSF 예방을 위해 모든 돼지(제주 제외) 예방백신접종('19년 백신항체 양성률 96.09%) 및 거래시 접종증명서 휴대(의무), 모든 돼지농장 검사(연2회), 야생멧돼지 검사 등의 방역 관리를 추진 중임

- 최근 경기북부, 강원지역 야생멧돼지로부터 검출된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 분석결과*(검역본부) 바이러스가 해당지역 멧돼지 간 순환 감염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, 북한에서 넘어온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음

※ 최근 검출된 바이러스는 '11년 경기북부지역 멧돼지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와 상동성이 높음

- 아울러,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예방을 위해 접경지역 등 14개 시군*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, 양돈농가(624호)에 대한 점검과 정밀검사, 울타리, 포획틀 등 멧돼지 침입차단시설 지원** 등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

* 강화, 옹진, 김포, 파주, 연천, 철원, 화천, 양구, 인제, 고성, 양주, 고양, 동두천, 포천

* 7.16일기준 특별관리지역 농가 울타리(624호중 504호) 및 포획틀(90개중 74개)설치, 전국 양돈농가(4,005호)에 기피제 배포·설치(6.30) 등

- 앞으로도 환경부와 함께 야생멧돼지 사전포획 강화 등 멧돼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음